

신분증 지참 지정 투표소에서...인증샷 맘껏

19대 대통령 10일 국회서 취임선서

투표 이렇게 하세요
투표용지 기표란 세로 길이
지난 대선보다 0.3cm 줄어
기표도장도 0.3cm 작아져
타 후보 기표란 닿지 않아야

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당일인 9일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권위 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선거일 투표는 전국 1만3964개의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이번 대선 투표 시간이 두 시간 늘어난 이유는 예년 대선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조기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는 반드시 주시주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투표자는 주시주 관할 투표소를 방문한 뒤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일 명부에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같이 치러지는 다른 선거가 없어 투표용지는 1장 뿐이다. 이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해 투표하면 된다. 정상적으로 기표를 하고도 글자나 기호 등을 투표지에 남긴 경우에도 무효투표로 분류된다.

선관위는 또 이번 선거는 후보자 수가 많아 투표용지 기표란의 세로 길이가 지난 대선보다 0.3cm 줄어들었으나 기표도장의 크기도 0.3cm 작게 제작했기 때문에 기표란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으며 기표란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 닿지 않으면 유효로 인정된다고 안내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다만 후보자란에 기표한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을 침범하거나 두 후보자란에 걸치는 경우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일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알파벳 등의 기호가 표시된 투표 인증샷을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할 수 있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해서는 안 되며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투표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당선자 운과이 드러나는 시간도 그만큼 늦어질 전망이다. 역대 대선 중 가장 많은 15명의 후보자가 출마하면서 물리적으로 개표 속도가 늦어지게 됐다. 개표속도는 사실상 투표지 분류기의 처리 속도에 좌우되는 측면이 큰데, 투표용지 길이 증가 18대 15.6cm에서 19대 28.5cm로 늘어나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 26.0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개표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회송용 봉투를 일일이 손으로 개봉해 개표 집계를 해야 하는 탓이다. /이충행기자 golee@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공동 진행...밤 8시 당선예상자 발표

한국방송협회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9일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해 투표 종료와 동시에 예상 당선자를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방송협회에 따르면 협회와 지상파 3사가 구성한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KEP)의 이번 대선 출구조사는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약 9만9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KEP의 의뢰를 받은 칸타퍼블러, 리서치 앤 리서치, 코리아리서치센터 등 3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원 약 1650명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투표소의 출구에서 50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 5명마다 1명씩을 대상으로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를 조사한다.

KEP는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사전투표 결과도 반영하기로 했다. 출구조사와 별도로 약 130명의 조사원이 전국 63개 투표소에서 출구를 나오는 투표자 기준으로 30분째마다 1명씩 약 3300명을 대상으로 투표한 후보, 후보 결정 시점과 이유, 탄핵 등 주요 사회 현안에 관한 의견 등 총 16개 문항을 심층 조사한다. 이렇게 집계된 조사 결과는 지상파 3사에 각각 전달돼 오후 8시 정각에 예상 당선자와 득표율이 동시 발표된다. 심층조사 결과는 오후 8시 30분부터 방송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의 오차한계는 출구조사의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0.8%포인트, 심층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로 KEP는 예상했다. /연합뉴스

한전 "투·개표소 전력공급 만전"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9일 시행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차질이 없도록 전력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국의 투표소(1만3964곳), 개표소(251곳) 등 선거 관련 주요시설의 전기공급 설비에 대한 정밀점검과 보강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 조환익 한전 사장은 8일 광주 북구 개표소인 염주체육관을 방문해

비상발전기,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포함한 4중 전원 현황을 점검하고 전력 공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전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9일 오전 5시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 분사, 사업소에 전력확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개표소 기술인력 파견, 투표소 공급선로 특별순시와 긴급복구인력 등 6821명이 비상근무 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

당선증 받고 업무 시작

9일 조기대선에서 선출되는 새 대통령은 당선 확정 직후 10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취임식은 12월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주도로 준비를 시작, 이듬해 2월 25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해의 정상 등 귀빈을 초청해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기대선의 경우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대부분 후보는 국회에서 당선증을 받고 취임선서를 하는 것으로 이를 대체하는 분위기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이하 기호순)의 경우 당선이 될 경우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로텐다홀)에서 취임선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서와 함께 당선증을 받고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이곳에서 선서하는 데에는 새 정부와 국회의 협의를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 문 후보 측의 설명이다. 문 후보 측 일각에서는 이날 약식으로 선서하되, 이후 광화문에서 공식 취임행사를 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약 한 달 뒤에는 촛불민심을 상징하는 광화문에서 새 대한민국의 출발을 알리자는 의견이 많다"며 "외교적 관점에서 보도 해의 정상을 초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대규모 취임식은 하지 않고 국회에서 선서만 한 뒤에 곧바로 업무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당선되면 취임식을 어디서 하겠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취임식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바로 국회에서 선서한 이

후 청와대에 가서 일을 시작하겠다"며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쟁한 후보들과 통화하는 일이며, 또 각 정당 대표의 협조를 구해 이른 시일 안에 협치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당선되면 대규모 취임식은 열지 않고 10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선서 후 곧바로 청와대로 들어가 업무과외부터 할 예정이다.

홍 후보는 이러한 방침을 유세현장에서 미리 밝힌 바 있다. 대선 홍 후보 역시 국정을 수습한 뒤에는 광화문에서 공식 행사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취임식을 하지 않겠다. 곧바로 나라부터 안정시키고 정리를 다 하고 난 뒤 8·15 광복절을 광화문에서 시민 100만 명을 모시고 공개적으로 취임식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선서를 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세연 사무총장 겸 선거대책부장은 "로텐다홀에서 당선증을 수령한 뒤 본회의장에서 취임식 및 취임선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다수 후보가 '국회 취임선서'를 선호하면서 국회 사무처는 9~10일 국회 내 주차를 제한하기로 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

국민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경우에는 5당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광화문에서 취임식을 열고서 취임선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 측 관계자는 "대규모 행사를 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번 대선은 촛불민심이 만들어진 것인 만큼 광화문에서 새 출발을 알려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39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당선

프랑스 중도신당의 에마뉼 마크롱(39·앙마르슈)이 극우진영의 마린 르펜(48·국민전선)을 꺾고 역대 최연소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됐다. <관련기사 8면> 프랑스 주요 여론조사기관들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 치러진 대선 결선투표에서 마크롱이 르펜을 상대로 65.5~66.1%를 득표할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르펜의 득표율은 33.9~34.5%로 예상된다.

마크롱은 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에 이어 프랑스 제5공화국의 여덟 번째 대통령에 오르게 됐다. 올해 만 서른아홉살인 마크롱은 역대 프랑스 대통령 중 최연소이며, 현 주요국 국가수반 중에서 도 가장 젊은 정치지도자다. 마크롱은 현 프랑수가 대통령의 경제 보좌관을 거쳐 경제 장관을 역임했다. 선출직 경험은 전무한 그는 '앙 마르슈'(En Marche·전진)라는 창당 1년 남짓 된 신생정당을 기반으로 단숨에 대권 도전에 성공했다. 마크롱은 승리 일선에서 "희망과 신의로 가득찬 프랑스의 새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르펜도 지지자 집회에서 패배를 시인하고 마크롱에게 "거대한 도전들에 맞서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주 풍수 공개강좌 및 수강생 모집

사주(명리)와 풍수를 한번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무료공개강좌

- 일 시 : 2017. 5. 9(화) 오후7시
- 장 소 : 남구 주월동 398-52, 2층 (구)대동고양 빛고을연합의원 우측 에벤에셀교회 2층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초급반 개강 (4개월 과정)

- 일 시 : 2017. 5. 16(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공개강좌 장소)
- 수강료 : 사주 + 풍수 15만원(월)

컨설팅분야

- 기갑풍수 비법전수 및 교육훈련
- 수맥파 중화, 양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매장, 이장, 납골당 등 음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대형건물, 토지 등의 풍수 감정
- 원인불명의 우환, 사업부진 등의 풍수적 진단
- 사주감정 및 교육 (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한국기감풍수연구회
 062)674-4991 / 010-2246-1508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계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금호동 상가건물 대 370㎡ 건물 2,000㎡ 매 32억원
- 금호동 상가건물 대 600㎡ 건물 2,100㎡ 매 36억원
- 치명동 5층 상가건물 대 360㎡ 건물 1,150㎡ 매 25억원
- 하남동 5층 상가건물 대 490㎡ 건물 2,000㎡ 매 40억원
-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 990㎡ 건물 1,890㎡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 28억원 (보2억,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 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월곡동 5층 상가건물 대 440㎡ 건물 1,500㎡ 매 25억
- 쌍암동 4층 상가건물 대 610㎡ 건물 1,100㎡ 매 29억
- 수완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입점)
- 신기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 308㎡ 건 861㎡ 매 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 385㎡ 건물 500㎡ 매 13억

토지

- 용전동 생산녹지, 대로적 9,400㎡ 매 48억원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도로적 990㎡ 5억원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9100㎡ 매 45억 (물류창고, 아적장 적합)
- 광산구 내산동 임야 36,000㎡ 매 3억
- 남평동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담 3426㎡ 4억2천만원 (가든식당 적합)
- 장성군 상서면 홍정리 대지 1316㎡ 매 1억4천(지대농음, 남향)
- 담양군 월산면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16억원
- 담양군 남면 학산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태광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 200㎡ 매 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 471㎡ 매 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 468㎡ 매 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기동 3층 상가건물 대 503㎡ 매 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 1,050㎡ 매 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6.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 336㎡ 매 18억원(보1.2억 월900 포함)
7.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 397㎡ 매 17억원(보1억 월1,0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 120㎡ 매 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가 주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 180㎡ 매 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 360㎡ 매 8.8억원(보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 310㎡ 매 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 250㎡ 매 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장 / 토지 / 기타

1. 용두동 북광주IC 인근 대로변 공장4동 대 6,150㎡ 매 58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임야 48,600㎡ 매 6.6억원
3. 신기동 생산녹지 담 745㎡ 매 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 770㎡ 매 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 33,070㎡ 매 6.5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원로 대 290㎡ 매 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층일반주거 전 2,115㎡ 매 2.8억원
8. 마곡동 상가분양권 1층 주출입구코너 71㎡ 매 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 문의 010-2572-4663